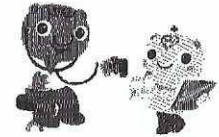




이달의 감염병 소식



□ 폐렴구균 감염증

폐렴구균 감염증은 급성 세균 감염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균혈증, 수막염, 중이염, 부비동염 등의 질환을 일으킵니다. 특히 5세미만 소아와 노인층에서 발생빈도가 높습니다. 치료에 효과적인 항생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항생제 내성도 강해지고 있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.

증상

- 폐렴, 균혈증 및 수막염이 주요 질환임
- 잠복기는 1~3일이며, 고열, 오한, 객담, 기침, 흉통, 호흡곤란 등을 동반함
- 성인의 경우 폐렴이 가장 흔함
- 합병증으로는 농흉, 심막염, 무기폐, 폐농양 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색, 심하면 사망에 이름

감염경로 및 전파기간

- 사람이 유일한 숙주임
-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콧물에 균이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
- 직접 접촉이나 기침 및 재채기로 전파
- 호흡기 질환이 흔한 겨울과 초봄에 잘 발생함
- 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
- 고령자이거나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될 수 있음

예방 및 관리

-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시행
 - 65세 이상: 1회 무료접종, 추가접종 필요없음(총 1회 접종)
 - 65세 미만: 접종 후 5년이 경과하고 65세 이상일시 재접종(총 2회 접종)
 - * 예방접종 시 80%의 중증폐렴 예방효과가 있음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

치료 및 관리

- 항생제로 치료 가능
-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
- 내성균에도 유효한 항생제로 초기에 경험적 치료를 시작
- 추후 항생제 감수성 양상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

자료제공 :



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
Gyeongnam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



경남병관리청